

“세계 무대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연주자 되고 싶어”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장호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진학 화제

제68회 호남예술제 ‘금상’ 출신

예중·예고 대신 동네학원서 레슨

“지역에서도 실력 증명” 뿌듯



피아니스트 장호

“서울로 가지 않아도, 예중·예고를 나오지 않아도 제 음악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광주 출신 음악도인 피아니스트 장호(20)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학사 과정에 합격해 지역 음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쾌거는 예중·예고 진학이나 수도권 중심 교육을 거치지 않고, 광주의 한 피아노학원에서 실력을 쌓아 해외 명문 음악대학에 진학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모차르테움은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유럽 대표 음악대학으로 세계적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리안 등을 배출한 곳이다.

장호는 11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비엔나나 잘츠부르크처럼 작곡가들이 살았던 도시에서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다”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잘츠부르크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에서의 수업 방식에 대해 “한국에서는 실기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곳에서는 곡의 캐릭터와 해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성격을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레슨이 주를 이룬다”며 “음악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 지극이 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웃었다.

장호의 진학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통상적인 코스와 별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전까지 오로지 광주 북구의 한 피아노학원에서 이 믿음 선생에게 사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경정고시를 택했다. 연습 시간을 확보해 음악에 집



광주 출신 음악도 장호 씨가 피아노 학원에서만 수학해 유럽 명문 음대 모차르테움에 진학해 화제다. 장호 씨(왼쪽)와 그의 스승인 이믿음 피아니스트가 함께 공연을 하는 모습.

중하기 위해서였다.

“예고는 제 성향과 맞지 않을 것 같았고 일반고에 가면 연습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믿음 선생님의 음악과 지도 방식이 저와 잘 맞는다고 느꼈죠. 콩쿠르를 다녀보니 지역에서 공부해도 수도권 또래들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호를 지도해 온 이믿음 선생은 “예중·예고 진학을 권유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지만 광주에 남아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며 “처음에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도 있었지만 책임감을 갖고 지도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지역 학생들은 레슨비와 이동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재능이 있어도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장호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깊이 있는 음악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동네 학원에서 시작하고 공부해도 세계 무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호가 음악을 시작한 계기는 그다지 특별하지는 않았다. 그는 “몇몇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동네 피아노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선생님 연주회에 초대받아 간 적이 있다”며 “무대 위에서 연주하고 박수 받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호남예술제에 꾸준히 참가하며 경험을 쌓았고, ‘제68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호남예술제는 늘 도전처럼 준비했던 무대였다”며 “지정곡이 발표되면 선생님이

갑자기 ‘나가볼래?’ 하고 숙제처럼 던져주셨는데, 그 과정이 곡을 빠르게 준비하는 힘을 길러줬다”고 장호는 말했다.

이외에도 모차르트국제콩쿠르 1위, 한국영재음악예술제 전체대상, 영아티스트콩쿠르 전체대상 등 주요 콩쿠르에서도 잇따라 성과를 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모차르테움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연주자로서 역량을 넓혀갈 계획이다.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어디서든 통하는 만큼 세계에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유학이라는 벽이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시도해보면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광주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도 꼭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작가는 어떻게 창작의 동인을 얻나

‘존재의 메기’ 전…28일까지 예술공간 집

외부의 강렬한 자극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메기 효과’라고 한다. 이 용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메기를 미끄러지기 들어 있는 수조에 넣으면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을 증명하는 것이다.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수조에 메기를 넣는 것은 그런 연유다.

오늘날 메기 효과는 경영이나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 전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외부적인 변화를 강제할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내면, 즉 예술가들이 변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내면의 긴장이나 자극을 도모하기도 한다.

메기 효과를 모티브로 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예술공간 집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존재의 메기: 멈추지 않게 하는 힘’을 진행한다. 전시는 모두 두 part로 나눠 펼쳐지는 데 part.1은 8일까지 열렸다. 강동호, 김민경, 김은택, 문진성, 박세현, 박희문, 윤우제, 이유빈, 조유나, 최윤정 작가가 참여했다.

part.2는 10인의 청년 작가가 참

여하며 권예솔, 김건, 박우민, 송미경, 유가은, 윤성민, 윤중훈, BA WUEE(정진환), 조성민, 하도훈 작가는 저마다 개성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10명의 청년작가들은 창작 과정에서 형성된 고유한 긴장과 자극의 지점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시한다. 동시에 청년 예술가들의 감성과 관점을 다면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권예솔의 ‘누구의 것도 아닌 녹음’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들판과 숲을 초점화했다. 웃자란 잡풀, 무질서하지만 나름의 질서를 이루며 숲을 형성한 나무들은 특유의 녹음으로 가득하다. 특정한 누구의 소유가 아닌 자연의 것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은유적으로 말한다.

박세현 작가의 ‘봄을 품다’는 형이상학적인 회화적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봄을 품은 대



이유빈 작 ‘생존본능’

상은 사실은 ‘관계’라는 추상적인 그물망임을 비유하는 것 같다. 존재 사이에 드리워진 관계를 상정하지만 그 관계가 노정하고 있는 것은 불안과 긴장이라는 변수들이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워크숍 ‘당신의 메기는 무엇인가?’가 26일 예정돼 있다. 패널로 임은신 서울 도로시살롱 갤러리 대표, 양조룡 독립큐레이터(미술평론)가 참여해 청년 작가들의 작업을 토대로 지역, 공간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류민정 큐레이터는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저마다 ‘메기 효과’를 자신들의 작업에 대입함으로써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창작의 동인으로 삼고 있다”며 “젊은 청년 작가 10인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자극의 지점과 존재의 방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사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세현 작가의 ‘봄을 품다’는 형이상학적인 회화적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는 봄을 품은 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다

전현자 개인전, 28일까지 ACC디자인호텔갤러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삶이 있다. 그러나 신은 그 꿈을 다 이루게끔 두지 않는다. 꿈의 여정에는 시련과 낭모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ACC디자인호텔갤러리에서 전현자 작가의 ‘꽃, 너머’ 전(오는 28일까지)을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다.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꿈은 무엇이었을까. 현실 속의 꽃이 아닌 환상적인 이미지의 꽃을 보고 있으면 작가의 심상에 드리워져 있을 꿈이 궁금해진다.

전 작가는 ‘꽃을 단순히 그린 것이 아닌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며 표현했다’며 ‘새로운 창작을 하는 동안 상상은 그 작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는데, 그것의 결과물이 이번 작품들’이라고 전했다.

사실 꽃은 활짝 핀 생명에 비견된다. 꽃을 초점화

하다보면 자칫 주위의 풍경, 주변의 그림자를 놓칠 수 있다. 작가는 꽃이 중심이 아닌 그 주변부, 다시 말해 너머를 화폭에 살뜰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 ‘꽃, 너머’는 뭉개구름 같기도, 양배추 같기도 이색적인 형상이다. 꽃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너머의 풍경, 주위의 형상이나 배경까지도 상상하게 한다.

한편 전시장에서 만난 김해성 작가는 “전 작가의 작품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듯한 느낌의 작업들을 한 것 같다”며 “회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빌리는 그림은 흐릿한 기억이나, 흘여 바라던 삶과의 고리에서 발현된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전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그녀에게 머무는 빛’ 등 다수 개인전,



‘꽃, 너머’

‘2021 히즈아트페어’ 등 다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복행’으로 다시 고도를 올리다…레슬리, 새 싱글 발표

착륙을 앞두고 다시 고도를 올리는 비행. ‘복행(Go-Around)’은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 더 안전한 착륙을 위한 선택이다.

광주 출신 아티스트



트레슬리(Leslie E.)가 항공을 모티브로 꾸준히 참가하며 경험을 쌓았고, ‘제68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호남예술제는 늘 도전처럼 준비했던 무대였다”며 “지정곡이 발표되면 선생님이



레슬리

리 측은 이번 협업이 향후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태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부기장과의 협업도 계획 중이다.

팬들과의 소통 방식 역시 역시 항공사 세계관에 맞춰 구성했다. 레슬리는

는 싱글 커버 이미지를 편집 ‘승객’의 투표로 결정했으며, 제작 과정과 협업 비하인드도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레슬리는 오는 12일 디지털 싱글 ‘Go-Around(복행)’을 발매한다. 지난해 항공 콘텐트의 첫 EP ‘TRANSPONDER’를 발표한 이후 이어지는 신작으로, 항공 용어와 사운드를 음악적 장치로 활용해 사랑과 기다림의 감정을 은유적으로 풀어냈다.

곡 제목인 ‘Go-Around’은 착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기가 다시 상승해 재접근하는 절차를 뜻한다. 레슬리는 이 개념을 관계의 감정선에 빗대어 확신에 닿지 못한 마음이 서두르지 않고 다시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을 노래했다. 절제된 표현 속에 기다림과 신뢰의 태도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싱글은 국내를 넘어 해외 협업으로도 눈길을 끈다. 태국 아티스트 스마트(SMU)가 모션 그래픽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으며, 레슬

리는 “복행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리기 위한 선택”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다시 착륙할 타이밍을 준비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 이번 곡이 누군가에게는 잠시 돌아가는 시간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나주의 샛골나이’ 미래 전승자 찾습니다

국가유산청 공모…3월 29일까지

예로부터 영산강을 면한 나주 지역은 목화를 재배해 무명짜기(무명짜기)가 발달했다. ‘나주의 샛골나이’(사진)는 지역을 넘어 나주를 알리는 중요한 무형 유산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전통 방식으로 제작된 면의 소비가 줄어드는데다 보유자의 작고로 전승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2017년 노진남 보유자와 2021년 김홍남 전승교육사가 작고해 현재 3명의 이수자가 남아 있다.

‘나주 샛골나이’는 전승 단체 위협이 커 국가기금 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